

## 충남현안 대응에 힘 모아줘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과 국방대학교 논산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충남도와 중앙정부간 팽팽한 줄다리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 동안 결연한 의지로 총력을 기울여 온 충남도의 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정부조치에 대해 순응해 온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우려와 기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현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강경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중앙정부는 지역현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타협만을 강요해 왔다. 충남현안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의지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장항산업단지 조성문제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과연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

\*이 글은 충청투데이(2007. 4. 16)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 장항산업단지가 새삼스럽게 문제가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갯벌의 환경성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갯벌의 환경성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3차에 걸친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대통령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장항 갯벌에는 “조개도 없고, 새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장항산단 조성에 비판적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추천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장항산단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문회의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제치고 환경부가 비현실적인 지역개발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정책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충남지역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취해 왔다. 장항산업단지는 18년 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그러나 유사한 조건을 지닌 군산지역에는 482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장항산업단지보다 환경성과 생태가치가 높은 새만금지역에도 560만평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이 부당한 정부조치를 허용한다면 중앙정부의 ‘충청 홀대론’은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충남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추진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항산단과 함께 국방대학교의 논산유치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 정책결정 절차와 정책 추진원칙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데 근본 원인이 있다.

국방대학교의 충남이전은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2005년 6월 9일 충남도와 국방부, 건설교통부, 행자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련정부부처와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그리고 2005년 10월 5일 행자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확정고시' 및 2006년 9월 4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확정고시 후속조치'에 국무총리 보고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정부내부의 협의를 근거로 국방대학교의 행정도시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원칙없는 조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전특위 위원들은 물론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막강한 정책결정권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면으로 맞서서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장항산단과 국방대학 논산 유치와 같이 부당한 정부조치에 대하여 성급하게 타협하는 것은 충남지역의 발전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충남도 당국은 손쉬운 대화와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지역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지역의 이해를 지켜 나가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은 충청인 모두의 몫임을 명심했으면 한다.